

위즈온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19-8

02-6012-9971

relax777@hanmail.net

홈페이지: 준비중

차별 없는 온라인 세상,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이것이 위즈온의 존재가치입니다.

위즈온

오영진 대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웹접근성 표준안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이미지(그림파일)에 설명 문구를 넣어줘야 하고, 마우스를 사용 못 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켜야 할 규약들이 많아요. 예컨대 홈페이지에 달력기능을 하나 추가할 경우에도 우리는 웹접근성을 준수하기 위해 일반 프로그램 소스들을 가져다 쓰지 않고 직접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까지 진행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홈페이지보다 작업량이 많아지죠. 시간도 1.5배 정도 더 걸리고요.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웹접근성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웹접근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리더기라는 소프트웨어가 설명글을 읽어주지 않아 홈페이지 이용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손으로 정교하게 마우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웹접근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보격차를 넘어 장애인들은 정보습득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 없는 온라인 사회를 위해서는 웹접근성 표준안을 맞추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업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겠는데요.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웹접근성이 지켜진 홈페이지가 하나하나 오픈할 때 보람을 느껴요. 웹접근성 대중화에 한 발씩 내딛는 느낌을 받거든요. 장애인을 고용하고 나아가 사회활

위즈온

위즈온은 장애인들도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연구, 개발하는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난 2013년 5월에 "위즈온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여 당사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온라인 정보 접근성 향상, 웹접근성 표준안 대중화를 소셜미션으로 한다.

동이 가능하도록 교육시키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나요?

알음알음으로 사람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를 가진 분들 비율이 70% 정도 되고요.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시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기신 분도 계세요.

조직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함께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월급이 높지 않은 대신 복리후생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거예요. 높은 봉급 대신의 로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한다거나, 가능하다면 나중에 회사에 수영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표님은 언제부터 몸이 불편하셨나요? '근이영양증'은 어떤 병인가요?

근이영양증의 자세한 증상은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어느 시점부터 근육세포가 점차 파괴되고 악화되는 병이에요. 초등학교 때 다른 아이들처럼 빨리 뛰는 게 어려웠고, 중학교 때부터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어요. 중학생 때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의 증세가 악화되어서 하늘로 보냈었는데요. 그때 근이영양증의 평균수명이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결론을 내리고 극복한 것은 "누구나 죽는 것 자명한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현재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장애를 가졌지만, 제 생활에 일부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활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성격은 어떠셨어요?

소극적이었어요. 사회성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특수학교에 다녔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해서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단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대학 가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바깥 세상은 장애인인 해쳐나가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실 때마다 강하게 몇번을 반복해서 설득했죠. 잘 지낼 수 있다고



하고 싶은 것 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렵게, 어렵게 허락을 해주시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반대하시고 그랬어요. 그 과정을 좀 오래 겪었어요. 결국, 대학을 갔죠. 막상 가서는 분위기가 예상했던 낯선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적응을 잘 한 편이었어요.

원래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원래부터 관심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글 쓰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엄청 많이 읽었고요.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일로는 먹고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은 막연한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게 딱 맞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대학 때 전공 공부는 어땠나요?

대학 때 웹디자인 쪽을 전공했는데, 학점이 4.38이었어요.

와. 그렇게 높은 학점 흔치 않은데요.

애초에 비장애인 친구들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과제를 내 주면 남들 하나 낼 때 저는 항상 두 개씩 냈어요.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스타일로 두 가지를 제출하는 식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을 보고 교수님들이 좋게 평가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선 일단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입학한 대학이기에 열심히 해야 했고요. 장애인이 일반직장에

다마스

출장이 많은 오영진 대표가 이동할 때 탑승하는 차로, 뒷부분 일부를 개조했다. 간혹 덥고 비좁은 것이 안타깝지만, 고마운 운송수단이라고



취직하려면 일반인들보다 더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장애인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나요?

일단 장애인은 일반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면접이 가능하다고 해도 저의 경우는 실제로 매일 휠체어를 타고 그 회사에 다닐 수 있을지, 회사건물에 진입할 때의 모든 경로를 파악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계단을 이용해야만 탑승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건물로의 진입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확인을 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IT 계열의 회사의 경우 1~3년 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직률이 높아요. 그러면 또다시 직장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취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장애에 특성상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무언가 공익적인 일도 해보고 싶었고요. 더군다나 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설득했어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신 건데, 주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업을 장애인이 헤쳐나가기에는 무리일거라는 말들도 많았고, 인생에서 쉬운 길을 두고 왜 굳이 어려운 길로 가느냐는 등 반대 의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장애의 특성상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무언가 공익적인 일도 해보고 싶었고, 더군다나 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설득에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역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간다”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큰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롤모델이 있다면 누구인지요?

롤모델 하면 위인 같은 사람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사실 저는 위인전을 별로 좋



아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업적은 조명되지만 그걸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주로 제가 일하거나 활동하는 환경에서 제가 부족한 점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그 부분의 멘토로 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님 한 분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뛰어나셨거든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셨는데, 그 부분을 닦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위즈온이라는 기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셜미션의 진정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해요. 사회적기업의 기업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의 고민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마음속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여자 사원이 한 분이시던데요.

맞아요.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웃음)

사무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지요?

함께 당사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서 그런지 가족 같은 분위기 같아요. 다들 유쾌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화합이 더욱 잘되는 것 같아요. 다만, 월급날이 되면 피가 마르는 때가 있었어요. (웃음) 이거 말고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내부 조합원들이 사회적기업가정신이나 협동조합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의견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불편할 때는 언제인가요?

일단 업무의 대부분이 출장이 많은 편이라 중증장애인의 몸으로서는 이동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차량 탑승시에도 도움을 받아야 하고, 출장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직원분이 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섹터에서 장애인은 주로 고용을 당하는(피고용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영진 대표님은 더욱 특별한 것 같아요. 비슷한 입장에서 기업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분이 사업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너무나 강렬한 열망과 절박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조언을 해 줄 입장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행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걸 힘 있게 계속 붙고 계시라는 거요.

5년 후에 위즈온, 아니면 대표님에 대해 크게 보도된다면, 어떤 내용이 조명되면 좋을까요?

5년 후라고 단정 짓기 보다는요, 일단 제 장애가 점점 악화되는 병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그때 은퇴하면서 구성원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는 기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열심히 기반을 만들고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싶어요.